

80년대 石油情勢展望과 精油産業의 対応戰略

李 鍾 學 (京仁에너지·專務)

I. 머리말

1 964년 油公의 蔚山 정유공장이 3만 5천 B/D 규모로 가동을 개시함으로써 출발한 국내 精油産業은 정부의 消費地 精製原則과 主油從炭에 입각한 에너지정책, 그리고 계속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계속된 증가



에 힘입어, 지난 20년간 1·2차 石油波動을 비롯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국가경제의 原動力이라 할 수 있는 石油에너지 공급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간의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며, 기술·경영능력의 축적은 물론 5개 精油社의 정제능력 79만B/D에 이른 오늘까지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이 시점의 국내 精油業界는 2차 석유파동후, 정부의 脫石油에너지 내지는 에너지 多邊化政策, 경제성장의 감퇴에 따른 수요의 둔화,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시설, 제품수요 패턴의 변화와 불확실한 原油시장정세등으로 數多한 난제에 봉착하여 있으며, 이와같은 난제를 앞으로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해결, 대처해 나가느냐에 精油業界의 생존여부가 달려있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최근의 자유세계 석유정세는 장기 침체상태에 있는 경기의 회복지연과 에너지 소비절약의 강화등으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原油생산량도 줄어들어 1982년에는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인 약 4천만B/D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原油생산량의 감소는 주로 OPEC

의 감산에 의한 것이고, 특히 原油수급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原油價 하락을 방지코자 3백만 B/D 이상을 감산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에 기인한다. 그리고 82년말 原油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非 OPEC국의 생산량은 증가되어 원유공급 과잉상태가 발생하자 OPEC은 감산, 쿼터 조정 등을 통하여 기준유가를 고수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회원국들간의 이해 상충으로 실효를 보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石油의 現物價格은 급락하였다. 그 후 소비국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OPEC회원국인 나이지리아가 英國의 유가인하에 이어 배럴당 5.5달러를 전격적으로 인하자, 결국 OPEC은 기준 유가를 5달러 이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가 금년 3월로서 1960년 OPEC이 창설된 이래 23년만에 처음으로 油價인하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 시점이었다.

또한 석유소비의 감소에 따른 精油工場의 폐쇄나 감축이 불가피하여 1982년에는 유럽과 美國을 중심

II. 国内外 石油情勢 現況

1. 國際石油情勢現況

으로 약 80개소의 정유공장이 폐쇄되었으며, 정유 능력 감소량은 5백만B/D에 이르렀다.

2. 国内石油情勢 現況

국내 石油사정도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소비 절약 추진과 脱石油政策 및 경기회복의 지연 등으로 원유도입, 제품생산, 제품 수요 등이 1979년을 정점으로 하여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우리나라 精油産業의 정제시설 능력은 최근 10년간 약 2배가 늘어났고, 특히 1979년 이후에는 雙龍精油의 가동과 湖南精油의 증설로 인하여 정제능력이 21만B/D가 늘어나 36%의 신장을 기록하였으나, 이와는 반대로 원유도입량은 1979년의 51만B/D에서 1982년에는 49만B/D로 약 4%가 감소하였다.

原油도입을 공급원별로 분류해 보면, 1978년까지는 메이저를 통한 원유도입이 100%였으나 1982년에는 메이저에 대한 의존율이 27%로 줄어 들었고, 그 대신 D-D베이스가 43%로 대중을 이루어 원유도입형태도 점차 精油社들의 산유국과의 직도입 계약 형태로 변화하여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79년의 오일쇼크 이후, 물량을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던 시기를 지나 原油의 수급 및 가격면에서 비교적 安定期를 맞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Ⅲ. 国内外 石油情勢 展望

대부분의 석유 전문가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石油의 수급 및 가격면에서의 안정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석유 시장의 안정은 1, 2 차 오일쇼크에 따른 지난 10년간의 급격한 가격상승의 결과로 인한 경제 성장의 후퇴와 에너지 소비절약으로 석유 소비의 증가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며, 2000년대까지는 석유 공급 과잉 혹은 수급 균형유지, 따라서 油價안정이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예로 사우디의 Arab. Light原油價格의 경우, 지난 10년간 약 11배가 상승하였으나, 1990

년까지는 40\$/B선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石油 전문가들은 이러한 낙관론에 대하여,

- 中東의 정치, 경제적 불안정
- OPEC의 매장량 감소 및 北美, 北海, 소련의 석유 생산 침체가능
- 석유 소비절약 및 代替에너지 개발 노력의 후퇴 및 중단
- 제3 세계의 수요증가 등을 이유로 절대적인 낙관은 곤란하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1. 石油需要展望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20년간의 自由世界 및 국내 에너지 소비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되고 있다.

〈表-1〉 自由世界 에너지 消費展望

(단위: 石油환산백만B/D)

	1982	1990	2000	연간신장율
總에너지소비	97	118	143	2.2%
石油 소비	45.6	47.4	53.7	0.9%
總에너지소비중 石油의 비중	47.0%	40.2%	37.6%	-

〈註〉 石油; LPG포함

〈자료〉 Chevron, World Energy Outlook, 1982. 6

〈表-2〉 国内 에너지 消費展望

(단위: 石油환산 천B/D)

	1982	1991	2001	연간신장율
總에너지소비	850	1,500	2,780	6.4%
石油 소비	490	660	890	3.2%
總에너지소비중 石油의 비중	57.8%	43.0%	32.2%	-

〈註〉 石油; LPG포함

〈자료〉 石油協會報, 1983. 2

이와 같이 앞으로 20년간 總에너지 소비중 石油의 비중은 다른 에너지에 비하여 점차 감소할 것이나, 절대물량은 自由世界 전체로 보면 약 20% 증가하고, 국내의 경우는 약 8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금세기 말까지는 石油가 에너지源의 주종이라는 위치에 변동이 없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OPEC 국가와 메이저의 영향력

과거 10여년간 세계原油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 두 차례나 석유파동을 일으켰던 OPEC의 위력은 최근 수년동안 위축되어 왔으나, 80년대 후반 자유세계 원유 생산의 50% 선을 유지하고 그 이후는 생산 증대를 통하여 영향력을 확대 유지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메이저 또한 70년대의 수세에서 앞으로는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表-3〉 自由世界 原油生産

(단위: 백만B/D)

	1990	1982	1990	2000
OPEC	27.1 (57%)	19.2 (47%)	22.0 (50%)	25.8 (55%)
非OPEC	20.8 (43%)	21.3 (53%)	22.0 (50%)	21.2 (45%)
計	47.9	40.5	44	47

(자료) IEA, 1982, 10
Chevron, 1982, 6

또한 OPEC 제국들은 그들의 정유시설을 확장하여 점차 原油보다는 제품으로, 또는 原油와 제품을 함께 수출하려 하고 있으며, 그들의 제품 수출 여력은 다음과 같이 추정되고 있다.

〈表-4〉 OPEC의 製品輸出 余力

(단위: 천B/D)

	1980	1985	1990
제품수출여력	1,200-1,400	3,300	4,000-5,700

이와 같이 1990년까지는 製品輸出 여력이 약 4 배로 신장될 전망이며, 이들 제품은 重質油 쪽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메이저의 전략은 장기계약 보다는 現物市場에서의 조달량을 늘리고, 在庫수준이나 정제 능력을 수요에 맞추어 축소시키고, 2차 설

비능력의 향상에 힘을 들여 輕質化 시대에 적응하며, 다국적 경영의 재검토 및 北美대륙과 北海의 석유 및 가스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IV. 국내 石油需要展望 및 問題點

1. 수요의 輕質化와 原油공급

앞으로 국내 石油수요는 다음 표와 같이, 급속한 輕質化 추세를 나타내도록 유도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精油産業의 대응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表-5〉 石油製品 유종별 需要 추정

(단위: 천B/D)

	1982	1984	1986	연간증가율
輕質溜分	244	295	345	9%
重質溜分	249	233	202	-5%
總 需要	493	528	547	2.6%

〈註〉 輕質溜分: LPG, 나프타 포함
重質溜分: B-B, B-C油, 아스팔트

(자료)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1982년은 실적기준임

이와 같이 1986년까지 輕質油 수요는 매년 9%가 증가하는데 반하여 重質油 수요는 매년 5%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重質油 수요의 감소는 주로 原子力, 石炭, LNG 발전소의 증가와 산업부문의 유연탄 이용 확대에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날이 갈수록 產油國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重質化되고 있어, 輕質溜分の 부족현상과 重質溜分の 과잉 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환경 보전을 위한 公害방지 대책에 의해서 1986년 부터는 輕油는 전량을 低硫黃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B-C油는 71%를 저유황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부담을 精油社들은 안고 있다.

참고로 정부의 저유황 제품 공급 확대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6〉 低硫黃 제품 供給 계획

(단위 : 공급율 %)

	1982	1984	1986
低硫黃 輕油	33	53	100
低硫黃B-C油	24	45	71

이러한 수급 불균형 문제와 低硫黃 제품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 需要 패턴에 맞는 低硫黃 輕質原油를 확보하거나,
- 重質油 분해시설과 脫黃 시설을 신규 설치,
- 또는 ● 中間溜分 절약 및 代替에너지 개발
 - LPG/LNG 활용에 의한 제품간의 수요 전환
 - 제품규격 변경에 의한 收率 향상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重質油 분해와 脫黃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신규 분해시설의 막대한 설비투자 소요자금 조달 문제와,
- 나. 이러한 설비투자에 상응하는 투자 보수가 보장될 수 있는 가격 구조가 되어 있는가?
- 다. 또한 제품 수입시와 비교하여 경제성이 있는가?

등이다. 그런데, 현 국내 가격구조하에서는 분해 및 脫黃 시설의 시설투자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형편이고, 더구나 막대한 자금 부담을 精油社는 독자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고유동의 低硫黃原油 확보가 가능하다면 현재 시설에 대한 약간의 補完(Dewaxing 시설 등), 제품 규격의 변경, 최종 소비자의 저장 시설 보완 등으로 수급 문제와 脫黃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原油 확보면에서는 低硫黃 輕質原油가 많이 생산되는 東南아시아 지역이 그들 산유국의 자원잠재력, 향후 경제성장 능력, 원유 수송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원유를 확보해야 할 대상지역으로 생각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제외교의 강화 등을 계속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3년 동안에 국내에 도입된 原油를 지역 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表-7〉 지역별 原油導入 実績

(단위 : %)

	1981	1982	1983(1-6월)
中 東	91	76	73
東南아시아	3	12	12
기 타	6	12	15
計	100	100	100

즉, 이와 같은 中東중심의 수입지역을 低硫黃 輕質原油가 주로 많이 생산되는 동남아지역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원유를 확보함으로써 重質油 분해/탈황 시설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임시, 잠정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重質油 분해 및 脫黃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신규 설비투자를 할 수 있는 제품 가격구조 등 제반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2. 국제 需要 추세와의 비교

그러면 우리나라의 석유 제품 수요 전망을 국제 추세와 비교 검토해 보자.

〈表-8〉 자유 세계와의 石油製品 需要 추정 비교

(단위 : %)

		1980	1985	1990	연간변화율
自由世界	휘발유/나프타	26	26	26	0.0
	中間溜分	31	32	33	0.6
	重質油	24	23	22	-0.9
	기 타	19	19	19	0.0
	計	100	100	100	
韓國	휘발유/나프타	15	16	16	0.6
	中間溜分	30	36	38	2.4
	重質油	52	39	34	-4.2
	기 타	3	9	12	14.9
	計	100	100	100	

(註) 重質油 : B-B, B-C油, 아스팔트

(자료) 1. World Energy Outlook to 2000(CMB)

2. 石油協會報, 1982. 9

위의 表에서와 같이 韓國은 中間溜分の 수요가 1980년의 30%에서 1990년의 38%로 대폭 늘어나고, 중질유 수요는 이와 반대로 18%나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輕質化 추세는 다른 국가들 보다 훨씬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輕質化 추세의 주원인은 原子力, 석탄, LNG 등의 脫石油 전원개발 및 산업부문의 유연탄 이용 확대에 기인한 증질제품의 수요 감소와 수송부문의 輕油 및 항공유 수요의 계속 증대에 있다.

참고로 電力부문에 있어서의 석유 의존도 감소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9〉 電力부문의 石油 의존도

(단위 : %)

	1980	1982	1986	1991	2001
전력부문의 석유 의존도	77	70	25	11	5

(자료) 동력자원 연구소

즉, 이러한 급격한 輕質化 추세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유도에 의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에너지의 안정공급 및 경제성을 고려한 에너지 다변화 정책은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현 精油業界가 적응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정책추진은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GNP가 1% 증가하면 석유수요가 1.1%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대까지 연평균 6.5~7.2%의 GNP 평균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반하여 石油의 수요는 겨우 3.2%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이는 重質油 수요를 정책적으로 다른 에너지源으로 돌리어 수요 패턴을 너무 급격히 왜곡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물론 精油社들도 석유 자원의 有限성과 국제 에너지 추세에 발맞추어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 에너지별 수요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국제적인 추세보다도 우리는 훨씬 급격하게 수요를 전환시키려 하고 있으며, 그것도 重質油 감소에만 偏重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점인 것이다.

代替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산업에 유연탄의 사용을 확대할 경우, 수입기지 건설비용, 유통체계 구축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공해문제 등이 발생한다.

또한 이에 따른 重質油 수요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重質油 분해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즉, 에너지産業 전체로 볼 때, 일부문의 경제성추구가 타 부문의 비경제성을 유발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이미 투자된 부문의 적정 수준 활용을 전제로 한 타 부문의 투자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전체적으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하여 한쪽 부분의 절약이 아닌, 전체의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적인 에너지 需要 전환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精油社의 확장과 代替에너지 산업

최근 국내 精油社의 가동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1979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원유처리 절대물량의 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精油社의 확장으로 인한 상대적인 가동률 저하 요인이 더 크다.

〈表- 10〉 국내 精油社 稼動現況

연 도	1979	1980	1981	1982
시설용량(천Bbl)	580	640	790	790
가 동 률(%)	86	77	62	60

이와 같은 가동률 저하는 유티시설을 발생시킴으로써 原価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영업활동에 있어서도 가동률 제고를 위한 과당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精油社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精油社로서는 존립에 관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아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시설확장의 경제적 타당성 판단의 일차적 책임은 당해 精油社에 있다고 하겠으나, 앞으로 정부에서도 신규시설 허가에는 정유업체 전체 및 나아가서는 에너지産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정 기능을 발휘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도 代替에너지

지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산업 전체로 본 경제적 타당성을 전제로,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존 에너지産業을 위협하지 않도록 간접적인 정책적 유도로서 서서히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며, 정유산업과 대체에너지와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代替에너지 산업에 대하여는 정유업계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총체적 경제성을 토대로 한 점진적, 자율적 에너지源의 전환과 정유업계에 대한 석유 관련 代替에너지 산업에의 우선 참여 허용만이 국가 기간산업인 정유산업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첩경이라고 할 것이다.

한 예로 지난 1982년 正友에너지가 출현하여 연료용 LPG시장에 뛰어 들었을 때의 정유업계의 혼란을 상기해 보면 그 해답은 自명한 것이다.

4. 價格構造

현재 국내제품별 가격구조는 국제가격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가격 구조하에서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막대한 重質油 분해/脫黃시설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제품간 수급 불균형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시기에는 우선 가격 메커니즘에 맡기어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바, 우리도 가격 메커니즘에 맡기어 수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表-11) 油種間 價格構造 (指數)

	韓 国	싱가포르	페르샤灣
나 프 타	92	127	131
輕 油	129	147	154
L P G	152	84	89
B-C 油	100	100	100

기준 : 세전 공장도
(자료) 石油協會報 1983. 2

현재 국내 가격 구조는 상기 표와 같은바, 타국에 비하여 輕油와 나프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러한 가격 체계에서는 重質油 분해

시설의 신규 투자에 대한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때문에 신규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가격구조의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石油事業法에 의하여 조성되는 安定基金, 備蓄基金은 기금재원이 精油産業 자체에 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그 용도는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 석유 개발사업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에너지 개발 사업에도 쓰이고 있어 그만큼 精油産業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는 과거 오랜기간 동안 석유 가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Break Even Point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왔으나, 精油産業에만 이익을 계속 불인정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의 衡平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겨우 1981년부터 자기자본의 세후 약 10% 수준으로 마진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여건하에서 자본의 축적이 되었을 리 없고, 따라서 重質油 분해 및 脫黃시설에 대한 신규투자의 능력이 없다.

앞으로 基金의 적절한 조정과 활용으로 精油社의 신규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다.

정부에서 휘발유, LPG등 일부 油種의 가격 자율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바, 우리는 휘발유와 LPG가 精油社의 Profit Center로서 과당경쟁을 유발할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판매 경쟁은 석유 제품은 가격을 제외하고는 여타의 경쟁요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은 가격 경쟁으로 귀착할 것이며,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판매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보일지 모르나, 결국 精油産業을 위축시켜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다.

때문에 판매경쟁으로 인한 精油社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높게 책정된 휘발유, LPG등 가격을 다른 油種에 분산하여 자율화 시행이전에 유종별 가격구조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당초 83년 換率상승율은 3%로 예상

하였으나, 9월말 현재 이미 5.5%가 상승하였으며 83년말에는 환율이 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원유도입량을 50만B/D로 추정할 때 환율 1% 상승에 따른 정유사의 연간 추가 비용은 약 450억원이 되며, 금년 유가조정시 기준환율 대비 약 4%의 환율 초과 상승에 따른 精油社의 추가부담은 실로 막대하다.

따라서 油価 환율연동제가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구조 등 문제가 오랫동안 누누히 지적되고 개선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별 개선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문제점이다.

5. 輸出入개방정책과 石油製品수출입

당초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 석유 시장에서 제품을 수입하기 보다는 原油를 들여와 정제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 수급 안정적인 면 등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消費地 精製原則을 세워 시행하여 왔으나, 오늘날에 이르러 이와같은 소비지 정제원칙이 많이 퇴색되어가고 있다. 석유사정이 긴급할때는 제품 수입이 원유수입보다 공급원 전환이 어려우므로 제품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경제 안전보장의 견지에서라도 문제점이 많다.

또한 産油國에서 원유와 제품을 함께 수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제품수입 확대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제품 수입을 자유화하게 되면 실수요자나 수입업자는 국내가격보다 싼 특정제품 및 가격이 저렴한 기간 동안만 직수입을 할 것이며, 가격이 비싸지면 철저히 외면 할 것이다.

따라서 精油社들은 이러한 수입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의 수요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되지만, 석유제품은 連産品이므로 특정 제품만을 감산하거나 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제품의 영향은 전제품의 가격체계에 막대한 혼란을 파급할 소지가 많다.

또한 精油社들은 이로 인해 일관성 있는 운영

이 불가능해지며 精油産業의 빈사상태와 제품수급의 해외 의존도 심화가 예견되며, 결과적으로 안정적 石油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石油은 일반상품과는 달리 국가간의 정치·경제 등 모든 면에 영향을 주는 전략적인 품목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일반상품에 적용되고 있는 수출입 개방정책이 精油産業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당초 精油社 이외의 제3자가 대량으로 LPG를 수입하려 할 때, 그 때의 LPG의 용도는 市販用이 아니라 나프타 代替品인 化學工業 원료로 들어오려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된 수입 LPG가 LPG연료 시장에 들어와서 독자적 판매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심한 혼란을 발생시켰고, 그 결과 예상했던대로 나프타는 부족한 상태가 되었으니 이러한 제3자에 의한 LPG수입은 이중의 혼란을 야기시킨 결과를 낳았다.

제품도입과 수출은 특수油種의 수요증감에 따라, 原油정제에 의한 조절로만은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할 경우 수급조절의 수단으로 精油業者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6. 多邊化 対象原油

多邊化 対象 原油라는 이름으로 금년에 하루 5만5천 배럴의 原油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바, 그 중 일부 원유는 精油社가 원유정제시의 손실을 무릅쓰고 처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精油社와 직접 연관이 없는 綜合會社· 건설회사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경우 그들 상사는 수출 혹은 기타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精油社들은 무거운 짐만 진 경우가 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누적되어 현재 가동을 저하등 여러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는 精油産業을 한층더 주름을 지게 하고 있다.

7. 國內 석유류제품 流通構造

국내 석유 제품의 流通構造는 1단계-3단계의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석유 제품의 原

율구성 중 유동 마진은 약 1.74%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石油판매업소의 신규 허가 자유화로운 한 지나친 증가 추세는 판매업소간의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價格 自律化가 실시되면 대리점의 기능저하로 유통질서에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안정적인 석유류제품의 공급을 위하여는 유통구조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통업계의 적정마진 보장 및 不正油類방지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石油가 에너지源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안정한 국제 석유정세 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국내의 정세 변화에 신속,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전한 精油産業을 육성해 나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重質油 수요의 급격한 감퇴와 輕質油 수요의 증가로 예견되는 제품수급의 불균형,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대두되는 重質油 분해 시설 및 脫黃시설 건설, 과잉시설 및 제 3 자에 의한 石油 관련 에너지공급 참여로 인한 과당 경쟁 등 수많은 난제가 精油業界에 가로놓여 있다.

석유정세전망을 언급하다보니 精油産業의 많은 문제점만을 주로 이야기 한 결과가 되었는데, 精油産業의 対応戰略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보며 1 차적으로 각 精油社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精油社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政策的 지원과 관계 인사들의 협조가 함께 있어야 해결 될 과제들이므로 관계당국과 모든 인사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 *

□ 産油国短信 □

主要産油国의 財政現況

石油歲入 減少로 부채 증대

産油国들은 石油需要減少, 油價引下에 따른 歲入減少로 부채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 베네주엘라와 같은 国家들은 國際通貨基金 IMF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에 있다. 최근 IMF는 美国의 할당額 84億弗이 美議會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財政이 궁핍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美政府는 IMF에 대해 보다 엄격한 融資制度의 실시를 제안하고 있으며 石油歲入減少를 보전하기 위해 IMF로 부터 補償融資를 얻으려는 OPEC會員国들의 요청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IMF問題와는 별도로 이라크의 財政은 惡化一路를 달리고 있다. 이란은 최근 石油輸出增大로 財政이 호전되고 있는데 반해 이라크의 外換保有高는 1980年の 250億弗에서 현재 10億弗 이하로 감소, 이란의 石油輸出港을 공격할 잠재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더우기 이라크는 사우디의 150億弗을 포함해서 아랍인접국에 250億弗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프랑스, 日本 等에게도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적극적인 石油輸出政策을 유지, 革命前 팔레비政權下의 150億弗에 달하던 對外負債를 상당히 청산했으며 石油産業의 国有化에 따른 부채도 변제하기 시작했다.

1,350億弗에 달하는 막대한 外換保有高를 갖고있는 사우디를 제외하고는 모든 産油国들이 石油歲入減少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중 나이지리아가 가장 심한 타격을 받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이지리아는 금년에도 輸入減少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貿易赤字가 발생, 부채가 총 140億弗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